



총리 후보에 기자 출신 문창극 '국가 대개조' 키잡은 깜짝 총리

행정경험 없는 보수 논객 책임총리제 구현 미지수

국정원장엔 이병기 지명 주내 내각·靑 개편 할 듯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기자 출신인 문창극(66) 서울대 초빙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입체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이다. 기존 공직사회의 관성적 폐단을 없애고, 정부조직은 물론 국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보수 논객'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굵직한 국정 여건을 수행할 추진력과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책임총리제 구현이라는 구상도 쉽지 않은 일을 전망이다. 결국 '언론인 출신 총리 지명'이라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은 앞으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문 후보자 지명을 '국민 분열 및 편가르기 인사'로 규정했다. 철저한 검증도 예고해 인사청문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일에 미력이나마 여생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 국민 경멸도 없는 정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명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문 후보자는 "평생을 언론인으로 지내고 이제 후진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며 "기쁘기 보다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는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지명은 정총

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난 4월 27일 이후 41일 만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병기 주일 대사를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중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대통령의 16~21일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로 예상됐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폭은 '현역적 경제팀'을 포함한 중폭 이상,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3~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29면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대통령 "유병언 못잡는 건 말 안돼" 숨고 싶은 檢

거둬진 질책에 좌불안석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 軍 동원 밀항 원천 봉쇄



대검 차장 주재로 유 전 회장 검거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경 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이들을 거둬 거론하며 김·경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군까지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좌불안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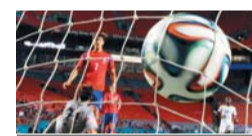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병언 검거를 위해 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검토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경이 총동원됐지만 도피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숨구스롭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국가기관 총동원령이 발동된 셈이다. 해결과 해군, 관세청은 밀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원근해 해안 경비와 항만 검색을 강화하고, 안행부는 주민신고 등 협조 요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치적 명을 차단하고 해외 체류 중인 밀가 강제송환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 검거는 김·경의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유 전 회장 수사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경우 검찰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측근 및 친인척 구속, 도피 계획자 및 조력자 구속, 재산 압류, 은신처 기습 등 갖은 방식을 다 동원했지만 추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12면

대검찰청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임정혁

전용민 남혁상 기자 imung@kmib.co.kr



한국축구 우울한 출정식
브라질 월드컵 D-2 >> 6·7·20면



병마 이긴 끝없는 새 사랑
다시 탐조나선 윤무부 박사 >>15면

국민일보 공나눔 캠프 | 웃음 되찾은 '얼음공주' 민희 이야기

"미용 특성화高, 목표가 생겼어요"

고교 1학년인 민희(가명·여)는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몸에 문구용 칼로 상처를 내는 버릇이 생겼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상처를 내고 자신의 피를 보고 나서야 칼을 멈췄다. 희고 가느다란 민희의 팔에는 깊게 베인 상처들이 군데군데 흉터로 남았다. 상처를 낼 때 아팠지만 가슴속에서 끓는 고통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민희는 중학교 시절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다. 모든 불행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울분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했다. 어머니는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다 다시 칼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냈다. 민희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내가 많다"고 했다.

3남매 중 막내인 민희는 늦둥이였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자주 싸웠다. 어느 날 희가 난 아버지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매를 맞았다.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면서 침울한 성격으로 변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 마음의 벽을 만들었다.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좋아지기 무섭게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민희는 이런 자신이 너무나 싫다.

민희의 언니(27)는 "너 때문에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 잘 좀 해라"고 질책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책했다. 부모님의 고생이 내 탓이란. 민희는 "나 때문에 엄마는 공장에 다니고, 막노동하는 아빠는 지방을 돌아다니느라 얼굴이 까맣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학교만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더 싫어졌다. 미용사가 되고 싶어 특성화고교를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안돼 일 반고로 진학했다. 자신이 쓸모없다

중학교 때부터 불우환경에 우울증 고통
울분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 자해
학교생활 무의미 자퇴 결심... 캠프 참여
강사와 대화하며 마음의 문 활짝 열어

고 느껴졌고 학교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자퇴를 결심했으나 학교를 그만둔 뒤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다.

민희는 교사의 권유로 국민일보가 주최한 공나눔 캠프를 찾았다. 본보는 지난 3월부터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거나 자퇴를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꿈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본보 2014년 3월 10일자 1·8·9면 참조). 민희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가평군 서울시학생교

육원에서 진행된 3기 캠프의 일원이 됐다. 민희처럼 자퇴를 신청하고 학업중단속려 중인 또래 학생 5명이 함께했다.

'얼음공주'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인상이었다.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 장백한 피부, 약간 올라간 눈꼬리... 입을 다물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캠프의 강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민희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2인 1조로 익숙한 이야기를 개작해 발표하는 '다시 쓰는 옛날이야기' 게임에서는 강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심정전을 고른 민희는 "심정은 유부녀였지만 바람피우는 나쁜 여자였어요"로 시작해 심정이 애인을 죽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위악(偽惡)'으로 자신을 감추는 듯했다.

민희는 캠프 첫날 밤 여자 강사와 밤늦도록 한 이불에 누워 대화를 하고 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 이튿날 '라이프 곡선 그리기'에서는 자기 애

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인생의 굴곡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아버지로부터 매 맞는 시기를 포함해서 가장 밑 부분으로 표현했다. 이내 감정이 격해지더니 눈물을 쏟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따라 나선 강사와 벤치에서 한참을 얘기하고는 "후련하다"며 돌아왔다.

이후 민희의 표정이 밝아졌다. 양초 공예시간에는 귀여운 강아지와 꽃을 만들고 자신의 '아바타'라고 했다. 친해진 여자 강사를 속속소 데려가더니 급격히 화장을 해주며 즐거워했다. 강사는 "민희가 몰입하며 행복해했다"고 했다.

민희는 캠프에서 만난 강사들과 다정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캠프가 끝난 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그 전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 했던 민희는 "지각하더라도 꼬박꼬박 나갈 생각"이라며 "어제(9일)는 지각도 안했다"고 말했다. 목표가 생겼다. 미용 특성화고 전학을 알아보면서 일단 확언에 다녀보기로 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 언니, 오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얘기를 캠프에서 들어서 기뻐요. 앞으로는 좀더 많이 웃으려고요" 수확기 너머로 민희의 웃음소리가 해맑게 들렸다. >> 관련기사 4·5면

가평=글/사연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국민일보가 주최한 공나눔 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강사와 포옹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2박3일간 서울시학생교육원에서 열린 캠프 3기는 자퇴를 신청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다.